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1 • 1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다윈 출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부터 200년 전 그러니까 1809년 2월 12일은 다윈이 출생한 날이다. 그리고 자신의 50세 되던 해 11월 1859년에 “종의 기원”이 출판됐다. 1959년 시카고대학에서 “종의 기원” 100주년 출판기념식이 열렸다. 여기서 다윈의 불독이란 별명을 가진 진화론자 헉슬리(Julian Huxley, 영국, 1887-1975)는 “진화적 사고 패턴에는 더 이상의 초자연적 필요성도, 또 그럴 여지도 없다. 지구는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진화했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 인간 자신을 포함하여 뇌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그랬다. 그리고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발언했다. 마치 진화론이 승리한 듯한 환호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과학자들은 그의 말에 동의했을까?

“진화, 적어도 다윈이 말하는 수준으로 볼 때,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생애에 목격한 적이 없다.”
David Kitts, “Paleontology and Evolutionary Theory,” *Evolution* 28, Sep. 24, 1974, 466.

“어떤 사람도 자연선택 과정에 의해 종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그 근처에 접근한 사람도 없다.”
Colins Patterson(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선임 고생물학자), “Cladistics,” *Interview on BBC*, March 4, 1982

“진화는... 유전적이고 발전적 과정의 난해한 복잡성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 핵심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의문은 종분화(speciation: 새로운 종을 등장시키는 진화과정) 그 자체다” Keith S. Thompson, “The Meanings of Evolution,” *American Scientist* 70, Sep/Oct 1982: 529.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기록이 없다” N. Takahata, “A Genetic Perspective on the Origin and History of Human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26, 1995: 355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진화론자도... 특별 창조의 반대인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로 화석기

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Mark Ridley(당시 옥스포드 대학의 동물학교수), “Who Doubts Evolution?” *New Scientist*, 90, June 25, 1981: 831.

“나는 화석기록의 가장 근혹스런 현실로서 생물역사의 분명한 “진보 방향” 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우리는 실제로는 보여주지 않지만, 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Stephen J. Gould(하버드 대학의 지질학교수로서 2002년 사망 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현대 진화론자), “The Ediacaran Experiment,” *Natural History* 93 (Feb, 1984): 23.

“어떻게 생물학적 발달의 힘과 물리학적 퇴보의 힘이 엇갈릴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불가사의한 것을 정면돌파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단지 의문만을 주장할 뿐이다.” Sydney Harris,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 *San Francisco Examiner* (Jan, 27, 198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질서해 진다는 열역학 제 2법칙과 진화론이 서로 상반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분류법에 근거한 관행과 진화에 대한 이해 사이에 적절한 관계 설정을 위해 오랫동안 토론해왔다.” David P. Mindell and Christine E. Thacker, “Rates of Molecular Evolution,”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27 (1996): 279.- 진화론적 사고와 생물 분류법의 모순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인체에 어떤 기능도 없다고 하여 (퇴화되어 남았다고 하는)흔적기관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맹장이 면역반응이 시작되는 장소 중에 하나로 사료된다” Roy Hartenstein, “Appendix,” *I Grolier Multimedia Encyclopedia 2001 (i3) (CD-ROM)*. 진화론이 한창 대두되었을 때 퇴화의 증거라고 주장되었던 흔적기관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판명되었다.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했던 적이 없다. 이는 진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꿰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빌 2:10-11

2 세대를 위한 AiG 창조과학세미나 – 200년간의 진화를 반박함

다윈의 해를 맞으며 저희 창조과학계에서는 진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2 세대가 참석할 수 있는 Answers in Genesis의 창조과학 세미나가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열립니다. 서부는 2009년 2월 6-7일에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에 소재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3800 S. Fairview St., Santa Ana, CA 92704; www.calvarychapel.com)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는 창조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중 3명인 켄 햄(Ken Ham), 데이비드 멘톤(David Menton), 그리고 앤드루 스넬링(Andrew Snelling)입니다. 동부는 2009년 2월 15-17일 Thomas Road Baptist Church(1 Mountain View Rd., Lynchburg, VA 24502; www.trbc.org)에서 켄 햄, 앤드루 스넬링, 데이비드 드윗(David Dewitt), 마커스 로쓰(Marcus Ross)입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교육되어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자녀들이 성경적인 안목으로 자라는 데 정말로 귀중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각 교회 단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잡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www.answersingenesis.org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As reported in an interview by Tom Bethell, “Agnostic Evolutionists: The Taxonomic Case Against Darwin,” *Harper’s* (Feb. 1985): 61.

“우리는 유전자코드의 기원에 관한 일반적 모양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유전자코드의 기원은 생명기원 문제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Leslie Orgel, “Darwinism at the Very Beginning of Life,” *New Scientist* 94 (April 15, 1982): 151.

위의 과학자들의 논문들은 한결같이 진화에 대한 회의적인 표현들이다. 그렇다면 과연 헉슬리의 공언은 맞았는가? 최근 진화론의 가장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것의 존재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면 할수록, 무작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표면상으로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은 지적인 설계자이다”(The Necessity of Darwinism, *New Scientist* 94, April 15, 1982: 130). 그러면서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를 볼 때, 그의 무신론적 믿음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2009년, 다윈의 출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진화론자들은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역으로 이용하여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진화의 문제점을 들춰낼 수 있고 진리를 발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벧전 3:15)

● 위의 인용구들은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설립자 Henry Morris 박사의 생애 마지막 책인 “Some call it Science” (2006)에서 발췌한 것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25)

완벽하게 공학적인 기린



기린은 현재 살고 있는 육지동물들 가운데 키가 가장 크다. 목이 길뿐 아니라 긴 다리는 빠르기도 하여 시속 55km로 달릴 수 있다. 기린(Giraffe)이란 단어도 아랍어 ‘zarafah’에서 왔는데 ‘재빨리 걷는 사람’에서 온 말이다. 기린의 몸과 목은 독특한 무늬들로 덮여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모양이 없지만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기린은 6-4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가끔씩 사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기린은 사자가 썩 좋아하는 먹이 감은 아니다. 왜냐하면 둥그렇게 모여 뒷발 차기로 사자의 머리통을 부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린은 포유류 가운데 가장 혈압이 높다. 사람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러한 높은 혈압은 긴 목을 통해 피를 뇌에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다. 만약 기린이 이와 같이 높은 혈압을 갖추지 않았다면 높이 있는 뇌에 피를 올리지 못해 기절해버릴 것이다. 실제로 기린의 심장은 지름이 60cm가 넘는다. 그러나 이런 고혈압은 기린이 물

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 오히려 생존에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머리에 거꾸로 피가 몰려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린은 놀랍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학적으로 섬세하게 디자인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세가지 꼽을 수 있다.

첫째로 기린이 물을 먹기 위하여 고개를 숙일 때 앞다리를 넓게 벌릴 수 있다. 이는 심장의 높이를 최저로 낮추어 머리와 위치를 가능한 비슷하게 놓아 머리로 향한 혈압을 최소화시킨다. 둘째로 기린의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경정맥에 혈액의 흐름을 체크하는 밸브가 있는데 머리를 숙이면 이들이 순간적으로 닫혀 피가 머리로 몰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세 번째로 뇌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수많은 혈관으로 채워진 해면체조직인 “경이로운 혈관그물”이 있다. 이 동맥의 피는 뇌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 혈관그물을 통하여 흐른다. 기린이 물을 마시기 위해 구부리면 이 혈관그물은 혈압이 뇌에 가해지지 않도록 혈액을 조절해준다.



진화가 정당한 것처럼 설명할 때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 다루었던 기린이다. 우리는 기린이 자꾸 목을 길게 늘이다 보니 지금의 긴 목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더 높은 과일을 따먹기가 쉬운 기린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았다고 설명하는 그림들을 쉽게 보아왔다. 그러나 앞의 완벽한 디자인을 보면, 기린이 높은 것을 따먹다 보니 목이 길어진 것 아니라 목이 길기 때문에 높은 것을 먹고 있다는 표현이 옳다.

재미있는 것은 기린의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쉬운데, 바로 기린의 먹는 방법 때문이다. 수컷은 높은 곳으로 목을 뻗어 음식을 취하는 반면, 암컷은 그들의 머리를 구부려 먹이를 먹는다! 과일 용불용설이나 진화를 주장했던 라마르크나 다윈이 이 사실을 알고 예로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바벨탑?? 바벨탑!!! (7)



흑인 부부가

백인 아이를 낳았다고요?

21세기 과학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1985년에 1200명의 과학자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15%의 생물학자, 36%의 발달심리학자, 41%의 인류학자, 그리고 무려 53%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생물학적인 인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진화론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인종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소개 했듯이 사람의 유전 정보를 보거나, 가계를 조사해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아도 역시 인류는 한 종 밖에는 없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자손이며 또한 노아의 자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겨 나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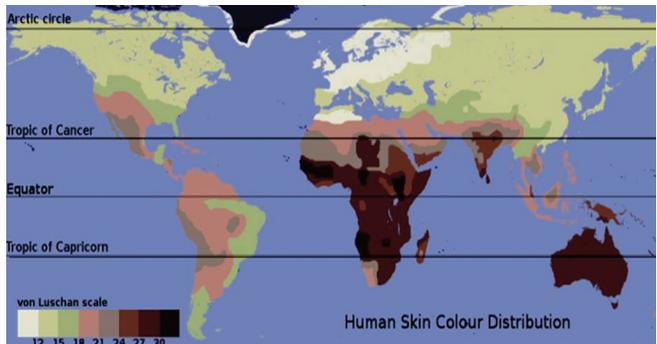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한 세상 과학자들의 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른다'이다. 그러나 지구와 우주의 실제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믿는 과학자들은 바벨의 역사와 과학적인 관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려면 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리시켜야 한다(450여 순종 개들이 이렇게 한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집단의 격리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1장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가 주어져 지구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격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약 20,000 가지가 넘는 유

전자들을 가지고 있어, 앞에 설명한 개 종류의 예처럼, 유전정보의 가감 없이도 무한히 다양한 유전정보를 가진 자손 즉 무한히 다른 모습(까만 피부 ~ 하얀 피부)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피부 색은 단 한 가지뿐이다. 검은 피부를 가졌든지 하얀 피부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암갈색의 멜라닌이란 단백질을 만드는 단 한 종류의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가적으로 다른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색깔을 표현하는 유전자는 멜라닌뿐이다. 따라서 멜라닌이 많이 표현되는 사람은 검고 적게 표현되는 사람은 희게 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 흑인 혹은 백인이라고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가 같은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에서 관찰 되고 있다(왼쪽 사진).

바벨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진 각 가족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유전정보가 훨씬 비슷하다. 이제 그들은 다른 가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독특한 환경에 이주하여 살게 될 때 자



1940년 이전의 피부색 분포

연선택의 힘이 더해져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갖도록 변화(변이)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같이 덥고 뜨거운 햇볕을 받는 곳에 하얀 피부와 뚱뚱한 체격을 가진 한 가족과 약간 검은 피부에 마른 체격을 가진 한 가족이 서로 격리되어 살게 된다면 검고 마른 사람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어 집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인구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1940년대 사람들의 피부 색을 보면 이 설명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불리는 사람은 자기의 기원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알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종이 어떻게 생겨 났을까? 이 질문도 그 변화 과정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상해 보지만 일반 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사실 역사가 기록 된 성경을 참고한다면 그 대답은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행17: 26)라고 기록 된 성경은 흑백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창조과학탐사여행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뉴욕성결교회, 한양장로교회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10월 31일 - 11월 2일 3일간 뉴욕성결교회(담임목사 장석진)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다섯 차례였으며, 토요일 낮에는 2세 영어권에게 “나는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두 시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21, 23일 한양장로교회(담임목사 강일준)에서 네 차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한양장로교회는 지난 봄에도 세미나를 연바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 평생학습원

동양선교교회(담임목사 강준민)의 평생학습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라는 제목으로 이재만 부회장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진화론이 등장했던 1800년도를 넘어 1900년도 중엽부터 변화된 철학과 세계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 팀들은 추수감사주간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창조과학학교 - 시애틀 형제교회

지난 11월 5-8일간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창조과학학교가 열렸습니다. 70여명이 등록하여 열띤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형제교회는 이번이 두 번째 창조과학학교였는데 봄에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가을에는 창조과학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일인 주일에는 영어 중고등부와 한어 중고등부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학대학교 강의

2008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베데스다대학교의 가을학기는 12월에 마치게 됩니다(강사 최우성 박사). 계속 된 기독교 대학들의 강의를 예정 되어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겨울학기로 1월 5일부터 16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1월 29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강의를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강사는 이재만 선교사와 최우성 박사가 각각 맡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될 인재들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확실한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학교 종강

지난 11월 10일 월요일 제 7기 중부 창조과학학교 10주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8명이 등록하여 16명이 수료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그 동안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놀라운 고백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14쪽에 간증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4월에 개강할 제8기는 시카고 제일 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김광태)에서 주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생수의 강 선교교회 탐사여행, 규화목공원에서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탐사여행

지난 11월 17-19일 생수의 강 선교교회(담임목사 안동주)가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45명의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듣고 보고 감격했습니다. 탐사여행 이후 생수의 강 선교교회는 정기적으로 탐사여행과 교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세신자를 위한 세미나인 “창조주 하나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6차 유학생 탐사여행 출발(12월 29-31일)

오는 12월 29-31일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이번 탐사여행 코스는 세도나, 규화목 국립공원, 그랜드캐년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열반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참가비는 단 \$70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격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샌디에고 탐사여행 출발(12월 25-27일)

매년 말이면 어김없이 샌디에고에서 출발하는 탐사여행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벌써 8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경유지는 그랜드캐년, 세도나, 모하비 사막 등입니다. 한빛교회나 창조과학선교회로 연락바랍니다.

미국창조과학회 NCSF 연회



NCSF에서 Dr. John Morris 내외와 함께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11월 13일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서 국제 창조과학 재단(NCSF, National Creation Science Foundation) 설립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열린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8월 샌디에고(CA)에서 달라스(TX)로 이사했던 연구소 기념행사도 겸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연구소 소장인 Dr. John Morris는 NCSF의 첫 연구프로젝트

인 GENOM과 FAST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GENOM은 유전자를 통한 생물학에 관한 그리고 FAST는 지층형성을 통한 지질학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지질학자인 Morris 소장은 FAST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격변적 지층형성에 대한 것으로 최근에 대두되는 수중중력류(subaqueous gra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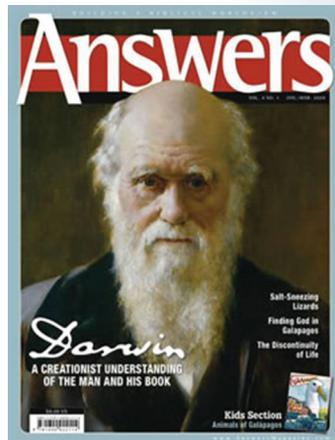
flows)에 의한 지층형성 과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중중력류는 기존에 가량의 혼탁류 또는 저탁류(turbidity current)라고 불리던 것으로, 시속 100km이상의 수중 퇴적물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지층이 형성된다는 모델을 말합니다. 앞으로 수행할 FAST 실험은 지층형성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실험보다 대규모라고 합니다.

Dr. Morris는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ICR이 기존 과학계에 끼친 가장 큰 두 가지 업적으로 격변론(catastrophism)과 전이화석이 부재(no transitional fossil)를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ICR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시간 중심으로 지질과정을 해석하려는 동일과정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시기인 1970년을 기점으로 지질학에 격변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지질학계는 퇴적과정이나 침식과정 등에 격변적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부터 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이화석이 없다는 것을 진화론자조차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진화론에 결정적인 문제로서, 결국에는 단속평형이론이라는 새로운 진화론이 탄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속평형이론이란 1972년 당시 진화론의 대부 격인 Gould와 Stanley 박사가 내놓은 이론으로, 전이화석의 부재 때문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단속평형이론이란 너무 빠르게 진화되었기 때문에 진화의 모습을 보여줄 전이화석을 남겨놓을 수 없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었지만 그 파충류들이 한동안 평형을 이루며 많아졌다가, 너무나 빠르게 새로 진화되어 전이화석이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기존의 진화론보다 상식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며, 지금은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NCSF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됨이 더욱 빠르게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윈의 해를 맞으며

2009년은 온갖 칭찬과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찰스 다윈의 출생 200주년(1809년 2월 12일)과 그의 저작 <종의 기원> 출판 150주년(1859년 11월 24일)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기회에 다윈 자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지난 150년의 진화론 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사들이 담긴 Answers in Genesis의 기간지 Answers가 출판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란 말처럼 올 해에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창조 사실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묵상되어져 창조주를 기뻐하고, 창조주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단층(Superfault)과 큰 결점(Superfault)

창세기 홍수 기간이나 그 이후의 격변적인 과정들은 지질학자와 지구물리학자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도전을 주고 있다. 기존 과학계는 산이 형성되고, 단층이 생기는 지질학적인 과정들을 수백만 년 걸려 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계속 보고되는 증거들은 엄청난 규모의 지질학적 과정들이 몇 달, 몇 일, 심지어는 몇 분만에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커다란 석회암괴(덩어리)가 최대 50 마일이나 빠르게 움직였다는 증거가 “노아홍수의 퇴적작용과 판구조론(Flood-Activated Sedimentation and Tectonics, FAST)” 연구자들에 의해 정밀하게 조사되고 있다.

대부분의 단층(fault)들은 수십 피트 이하로 어긋나 있다. 그러나 단층이 훨씬 더 커서 수마일 어긋나 있는 암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규모 단층(superfault)이라고 한다. 이런 대형 단층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격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가까운 와이오밍 북서쪽에 있는 Heart Mountain의 단층은 대륙의 암석이 미끄러진 것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거대한 암석은 면적이 400 평방 마일이 넘고 두께는 300 미터 이상인데 2도가 채 안 되는 경사를 시간당 50 마일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 간 것이다.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진 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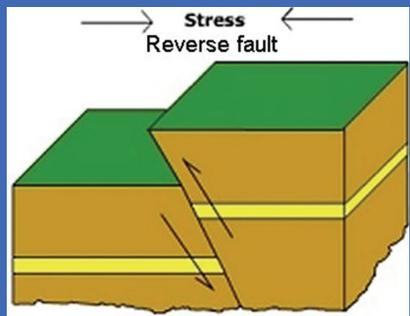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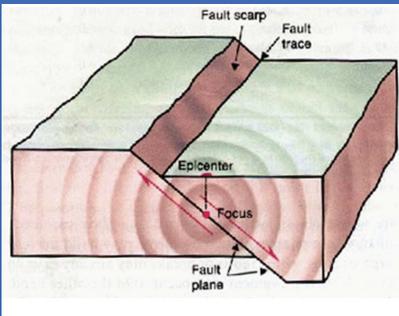
괴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다는 증거는 지질학자들에게 여러 해 동안 수수께끼였다. 이런 대형 암석괴가 경사가 2도 밖에 안 되는 지형을 재빠르게 이동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이 표면에 생기는 마찰을 줄여서 하부 암석들이 부서지지 않게 했던 말인가? 그 암석이 녹아서 얇은 액체나 기체 막을 형성할 수라도 있었다는 말인가?

최근 세속 과학자들과 창조과학자들의 연구들은 이런 격변적인 대형 단층들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한 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단층의 얇은 암석층은 매끄러운 광물들이 녹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 온도가 1000° C가 넘었고 석회암이 미끄러질 때 기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에 큰 운석이 높은 속도로 지구에 부딪혔을 때 높은 온도에서 현무암을 녹여 유사한 매끄러운 광물들을 만든 것을 분화구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자들은 Heart Mountain의 놀라운 아이러니를 수백만 년 동안에 천천히 점진적인 과정으로 형성되었다고 믿어왔었지만, 최근 격변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는 증거들에 의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FAST 그룹은 2008년 여름에 Heart Mountain 근처에서 현장 조사를 하여 단층의 격변적인 모습에 대한 증거를 탐사하고 암석 시료를 수집하였다. 그들은 그 산 남쪽에 있는 단층과 남쪽 분기점의 단층을 지도로 만들었다. 이 단층의 많은 부분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접근할 수는 없지만 표면에 노출된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들은 이 부분의 단층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고 그 단층에서 수집된 광물 시료 들을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그 연구팀은 Heart Mountain 지역의 대형 단층을 수학적 모의 실험을 하여 창세기 홍수에 이어 일어난 격변적인 조건아래서 그것들의 이동을 도식화할 계획이다. ICR과 계약을 맺고 FAST 과제를 총괄하고 있는 Steve Austin 박사는 Heart Mountain의 단층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젊은 지구와 격변적인 홍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흥분해 있다.

Larry Vardiman, Ph.D. ICR 연구 책임자. *Acts & Facts*, 37 (11): 6.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7기를 마치며

창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지만 의외로 답변이 궁해진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순간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였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다. 창조라는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 없이 들어온 말이며 또 사용한 말이 아닌가? 그런데 막상 창조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입술로만 외워왔던 구절에 불과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록한 교과서를 정설로 믿어 왔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오래 전부터 창조과학에 대해 소개한 광고와 먼저 세미나에 참석 하였던 분들의 권유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 7기 창조과학학교에 늦게나마 등록한 것이다.

첫날 강의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임하였다. 천체 물리학이나 인류학 지질학 등에 상식 이 거의 없던 나에게 일종의 두려움이랄까 하는 세상적인 염려가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한갓 허구성을 기록해 놓은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닫게된 것이다. 과학은 과거를 관찰할 수도 없고 또 실험할 수도 없다고 한다. 오늘날 학문의 기본은 성경에 (고후 10:5)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바탕을 둔 사실도 알게된 것이다. 참으로 첫 시간 부터 너무도 소중한 것으로 나를 깨우쳐 준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었지 실제 6일동안 창조된 것과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된 것, 우주 창조의 역사가 약 6천년 이라는 사실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억된 것이다.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역사의 이야기로만 믿어왔던 일이다. 그러나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도 흥미진진 하였으며 노아 홍수사건이 사실 이었다는 것을 지질학자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었지 실제 6일동안 창조된 것과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된 것,
우주 창조의 역사가 약 6천년 이라는 사실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억된 것이다.

서 실제 미국의 그랜캐년을 예로들어 설명하는 실감있는 강좌는 아주 충격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우성 박사의 변이와 진화론 중에 멘델의 완두콩 이론은 다양한 완두의 변이의 결과였으며 새로운 유전형질 증가가 없었다는 보고는 매우 감명깊은 내용이었다. 나는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 하고서 여러가지 감회도 깊었지만 한편으로는 진화론자들의 세력이 이토록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군림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토록 무능하고 무관심 속에 수수 방관만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찌하여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의 형상으로 격하 되었는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진화론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증명이 되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강력히 그에 대항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수치이며 시급히 해결 해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창조과학 세미나는 참석자 모두에게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알지 못했던 창조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해답을 얻을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해 주는 지름길 이라는것을 알게 했다.

...

이번 창조과학학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고백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끝으로 이 강의를 위해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모든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 제일장로교회 김용배 장로

2008년 ACT Schedule

- 12/9 뉴저지 하늘문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 381-1390), L.A, CA
- 12/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858-733-1129), San Diego, CA
- 12/29-31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2009년

- 1/5-1/16 윌드미션대학교 강의 (이재만, (323-823-4629), L.A, CA
- 1/29-5/14 미주장로교신학대학교 강의 (최우성, 562-926-1023), LA, CA
- 3/12 대전지부 (이재만), 본국
- 3/16 부산대학교 (이재만), 본국
- 3/16 인제대학교 (이재만), 본국
- 4/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760-745-4977)
- 4/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카고 헬로십 교회, 213-381-1390)
- 5/7-9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 7/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 7/27-30 창조과학 탐사여행 (Come Mission, 213-383-5499)
- 7/31-8/2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공동체, 213-446-2821)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온누리교회, 213-382-5658)
- 9/18-20 유타 교회협의회 (이재만) Salt Lake City, UT
- 10/23-25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 11/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213-381-1390)
- 12/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858-874-2412), San Diego, CA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